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 법회 봉행



코네티컷주 뉴타운. 최근 총기 참사 이후 수많은 추도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에 뉴욕 일원의 스님과 불자들이 추모의 기도를 올렸다.

12월 18일 오후 3시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벌어진 뉴타운의 '추모의 나무' 앞에서 애도하던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추모의 기도를 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에워쌌다. NBC와 ABC·CNN·AP 통신 등 현장에 있던 주요 미디어들도 예상치 못한 스님들의 추도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취재에 나섰다. 참사 이후 나올까 인 이날까지 개인적으로 현장을 찾은 추도객들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특정 종교인들이 추모제를 올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의 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이었다. 뉴욕불교사원연합회장을 역임한 원영스님을 비롯해 원각사 주지 지광스님, 보리사 주지 원총스님, 불광선원 지호스님, 태고종단의 혜진스님과 김정광 뉴욕불교문화원장 등은 일행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조화를 바치고 향불을 켰다. 고문 원영스님(보리사의)의 죽비에 맞

추어 입장을 한 후 부교구장 지광스님(원각사의) 요령과 염불 그리고 원총스님(보리사의)의 목탁소리에 맞춰 함께 한 불자들과 일념으로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15분에 걸친 기도를 끝내고 연이어 범성계를 염불하며 샌드훅 초등학교 입구까지 걸어가 다시 한 번 영가들을 위한 추모 예불을 드렸다. 반야심경과 장엄염불 등을 외우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모습에 언어와 종교, 문화가 다른 추도객들도 함께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일부는 합장을 따라 하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원영스님은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며 "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팠지만 남아있는 가족과 주민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는 12월 17일에 허리케인 샌디와 샌드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희생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Save the Children's Hurricane Sandy Children in Emergency Fund와 Sandy Hook School Support Fund에 각각 \$500씩 총 \$1,000을 보시하였다. 글_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미 북가주 불교인, 연합 송년법회 봉행

북가주 불교인들이 12월 15일 쿠퍼티노 쿨란 커뮤니티센터에서 '제6회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교파를 떠나 한 마음 한뜻으로 교류하며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사(주지 지연스님)·보리사(주지 형전스님) 주지스님과 벽산·선중 원불교 교무, 재가 불자, 외빈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의 목탁과 원불교 샌프란시스코교당 김수진 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삼귀의, 찬불가가 봉행되었고, 지연스님(북가주 승가회 대표) 송년 법문, 임수성(수선회 회장) 재가불자 대표 축사, 이상운 행사준비위원장 경과보고, 그리고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 희생

어린이들을 위한 애도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각 사찰과 원불교 교당, 단체·개인들이 준비한 장구춤, 노래, 사물놀이, 해금·피아노 협연, '쑈바' 강사와 함께하는 '강남스타일' 군무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원불교의 선중 교무는 불자 김수진(피아노)씨와 함께 해금을 협연, 청중들로부터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원불교와 함께 진행하는 등 범불교적 치러졌으며 5시에 시작한 행사는 9시가 다 되어 마무리되었다. 행사 후 남은 금액은 북가주 사찰 8곳과 원불교 교당 등에 나누어 보시하기로 했다. 참가자에게는 서울 왕복 항공권과 아이패드, 김한일 치과 무료 진료권 등 푸짐한 상품과 선물이 불자들에게 전달됐다.



한국왕복 항공권이 걸린 래플티켓 1등은 보리사에 다니며 타라 모임에서도 적극 활

동하는 손예리 양에게 돌아갔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반갑다 연우야 ·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라오스 의료봉사 다녀오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무앙팡양군 폰싸바쓰 마을에서 11월 25일부터 3일간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홍) 불교 의료봉사단체 반갑다 연우야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는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착 직후 한국에서 라오스로 가져온 의료기기와 약품 등 600kg에 달하는 물품 32 박스가 파란 조끼를 입은 봉사단에 의해 해체되고 있었다. 그리고 입원실이 전혀 없는 폰싸바쓰 보건소에 내과, 소아과, 외과, 치과, 한의과 그리고 약국이 차려졌다. 원두막 같은 곳엔 발마사지 전용 장소도 마련됐고, 접수처 옆에선 2세 이상인 라오스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준비해온 2,000개의 구충제를 나눠줬다. 보건소가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폰싸바쓰 마을은 라오스의 가장 큰 댐인 남능댐 건설 때문에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의 정착지다. 한정된 토지에서 1,113가구 6,500여 명이 살다 보니 가구당 경작지가 적어 농업이 주업인 주민 생활 수준이 라오스 내 최하위에 속해 나라에서 식량배급을 시행 중이다.

이곳에서 의료진과 일반봉사자 40명은 2박 3일간 '사바이 디(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길(Happy Together)'을 찾자고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면 함께했다. 행정안전부와 불광사, 봉은사, 베리콤, 한미약품, LG생명과학이 후원한 것이다.

접수가 시작되자 번호표를 받은 주민이 몰려들었다. 진료 시작 후에도 진료소를 찾는 주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손수레에 몸을 의지한 뒤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한의학과를 찾은 할머니, 팔과 손주를 데려온 36세 할머니,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와 아버지 등등. 그네들에게 무료진료는 평생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왔던 매우 어려운 삶으로 메말랐던 몸과 마음을 적시는 단비였다.

봉사단 지도법사 명궁(좋은절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입재식을 봉행한 뒤 폰싸바쓰 마을 주민에게 부족하지 않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팀을 짰다. 내과, 소아과, 외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엔 각 분야 전문의와 간호사가 배치되었으며, 마당에서는 아이들

이 축구는 물론 한국 민속놀이인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하며 뛰어놀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통역도 혜현스님이 운영 중인 보리·청허영어학교 재학생과 교사 13명이 도왔다. 학생과 주민은 라오스어로 아픈 곳을 묻고 답했으며, 학생과 의료진은 영어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몇 단계를 거치는 등 다소 불편한 진료였으나 의료진과 통역, 주민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다.

진료실마다 의료혜택이 적은 마을 분위기와 주민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났다. 백내장, 썩은 치아, 휘고 부은 다리, 아픈 배 등등 봉사단과 주민들의 눈빛이 바빠 오고 갔다. 내과를 찾은 말라이길(83)스님은 10년 넘게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왔다. 나이 들어 절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재가자인 분마(47)씨가 집에서 15년을 시봉해 왔다. 약을 먹어도 스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스님을 모시고 왔다. 류재환 경희의료원 동서의학과 교수가 혈압을 검사하고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몸에 댔다.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추가로 한 뒤 처방을 내렸다. 스님 혈액에선 몸에 좋지 않은 중성, 포화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 류 교수는 "심전도는 괜찮아 단 것을 줄이라 일렀고 식습관 조절과 운동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폰싸바쓰 마을주민에게는 머나먼 한국에서 불교국가 라오스를 찾아온 의료진이 약왕보살이었다. 진료 첫날 치과를 찾아



카리스트 학생들이 버무린 마곡사 자비의 '김장 템플스테이'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태화산 마곡사주지 원혜스님은 11월 23일~25일(2박 3일)까지 한겨울 동안 먹을 김장 김치 약 3,000포기와 더불어 지역 복지기관·소외계층·다문화가정 등에 나눠 줄 자비의 김장김치(약 7,000포기) 담그기 및 배추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 조계종 대전충청전법단(단장 선일스님)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마곡사에서 카리스트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장템플스테이를 실시했고, 마곡사 신도회, 지역복지단체 등 500여 명이 함께 했다. 독일·루마니아·이탈리아·덴마크 등 12개국 교환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김장 템플스테이는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것부터 동참, 서투른 솜씨임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였다. 또한, 공유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새벽예불, 108배 및 염주 꿇기, 참선, 솔바람 산행 등을 체험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정서와 사찰의 풍경을 그대로 느끼게 해줬다.

이튿날 새벽 4시에 일어난 참가자들은 대광보전에서 새벽 예불을 드렸다.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도 함께 하고자 진지한 표정으로 임하는 새벽 예불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게도 했다. 25일에는 배추에 속을 버무리는 김장이 시작되었는데, 양쪽 웃소매는 고춧가루가 빨갛게 묻어 있

었지만, 신기한 표정으로 연신 웃으며 체험을 하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에 있었던 법주사 템플스테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사찰의 잔잔한 정취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친구들은 바쁘고 삭막하게 사는 요즘에 잠시 다른 세상에 다녀온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좋은 체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동참한 이윤신 국제포교사는 앞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마곡사 주지스님은 "세계는 본래부터 하나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로 이는 불교의 연기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마곡사도 친환경 생태 도량으로서 바쁜 일상에서 지친 현대인이 정신을 수련하고,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돕고자 하는 노력을 세웠다. 이번 자비나눔 김장김치·배추나눔 행사도 그 일환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는 하나의 꽃이라는 명제가 성립된 것 같다.

글_ 마곡사 포교과장 강호석 041-821-6221



폰 이를 뽑은 랑쎄(41)씨는 연신 웃음을 보였다. 그녀는 "내내 아파 고통스러웠는데 뽑고 나니 시원하다"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 내일 할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고 진료소를 나섰다.

11월 27일까지 무료진료 사흘 동안 1,228명이 진료소를 찾았고, 각 분야를 통틀어 3,054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마을 주민은 한국 불자의 온정을 가득 안고 진료소를 빠져나갔다. 손엔 약봉지, 얼굴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약을 먹으면 아픈 곳이 다 나을 수 있다는 기대와 의료봉사단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믿음

도 한 아름 안고 떠났다. 진료 마지막 날, 마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봉사단을 환송했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을 보건소장 캄다씨는 "주민이 행복해 한다. 정말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은 봉사단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얀 실에 담아 봉사단 손목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묶었다.

11월 28일 비엔티안 공항,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지쳐 잠든 봉사단 손목엔 라오스 주민들이 전해준 건강의 서원이 담긴 흰색 실이 나란히 감겨 있었다.

글_ 사/날마다좋은날 총괄팀장 장성원 02-732-7272

■ 라오스 해외 의료봉사 주최/주관단체 소개

(사)날마다좋은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복지사업, 교육사업, 전통문화 창달 및 구현사업, 해외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전국 불자 의료인들이 모여 2000년 7월에 창립, 무의촌 의료봉사 및 공익사업 의료지원 활동, 해외의료봉사 사업 등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비영리단체
반갑다 연우야	사/날마다 좋은날의 부설기관으로 일반봉사는 물론 의료검진 및 양/한방 진료와 이주노동자 진료, 무의탁(장애)아동의 치료 진료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불교 의료봉사단체

위드아시아, 10돌 후원의 밤 행사 개최

지난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위드아시아 10돌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의 후원자와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설법연구원 원장 동출스님,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김봉대 한국원폭2세환우회 고문,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자동 대한민국의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최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순옥 민주당 합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스님은 “가슴을 열고 눈을 뜨면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웃이며, 통일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펼칠 것”이라는 인사말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구호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행사 1부에는 원폭2세 환우회 한정순 회장의 삶의 이야기와 핵에 대한 문제를 담은



김환태 감독의 다큐멘터리 ‘잔인한 내림-遺傳’ 상영을, 2부에서는 위드아시아 활동 경과보고 동영상, 후원자 감사장 전달, 1% 나눔운동 협약식 등을 가졌다.

위드아시아는 지난 2002년부터 조선족 중, 고,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국제구호에 관심을 뒀으며, 대북인도지원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어린이 통일 신발 보내기 등의 인도지원사업과 인도, 태국,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절대 빈곤지역에 화장실, 우물 설치와 지붕 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원폭2세환우의 쉼터인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을 개소하여 원폭피해자 및 2, 3세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후원문의 법인사무국 051-322-7902

서울사무국 02-3444-8007

www.withasia.kr / withasia21@gmail.co.kr



① 월주스님과 스리 파슈파티 영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준공을 기뻐하고 있다. ② 공사 자재들이 너무러져 있는 학습 현장 ③ 나무 밑에서 공부하는 스리 파슈파티 영화 초등학교 학생들

지구촌 공생회, 네팔 스리 파슈파티 영화 초등학교 준공식 거행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은) 자비의 두 손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에게 종교, 정치, 문화, 이념을 넘어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해가는 국제개발구호 NGO이다. 2003년 설립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네팔, 케냐에서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 사업,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네팔 룸비니의 한 마을에 (사)지구촌공생회가 4번째로 건립한 스리 파슈파티 영화 초등학교 준공식이 거행됐다. 학교는 교실 5칸, 화장실 4칸, 교무실로 이뤄져 있으며 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동물병원, 폐지 수집장, 나무 밑에서 공부하던 200여 명의 아이가 교육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행사에는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 사무총장 원광스님, 사무처장 화평스님,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스님, 부산 해일암 주지 우신스님, 총무 법수스님, 네팔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스님, 지역 교육부 대표, 주지사, 마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의 열정을 놓지 않았던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나마스떼!(당신 안에 깃든 신에게 경배합니다)”를 외치며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더욱 늠름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스리파슈파티 영화초등학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영화사, 남원 선원사 운천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스님, 불자들의 정성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희망해, 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등의 모금을 통해 지어진 학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지부 방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스님과 직원 20여 명은 캄보디아 ‘로터스월드’를 방문하여 후원금(약 100만 원)과 아동복 60여 벌, 칫솔 70개 등의 후원품을 전달하였다.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직원 해외연수는 3박 5일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앙코르와트 등 문화 유적도 살펴보고 견문을 확대할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아동구호기관인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지부를 방문하여 현지의 아동복지와 교육현황을 확인하고 후원금과 후원품을 전달하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은 “더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재난과 굶주림에 고통받지 않길 바라며, 복지관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홍보담당 민지현

02-742-9500~2



다. 이처럼 부처님 탄생지의 천진불들을 위한 전국 각지의 진실한 불심들이 모여 지어진 학교로써 스리시데솔 공립학교, 스리아다사 송명례 초등학교, 스리마하락시미 초등학교에 이어 네팔 어린이들의 꿈을 후원할 예정이다.

월주스님은 “룸비니는 부처님 탄생지라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불제자로서 룸비니 교육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쏟았다. 우리 천진불들이 씩씩하게 공부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한다.”며 준공을 축하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룸비니 카필바스투 주(卍) 바스콜 마을에 있는 스리 칼리마

이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스님의 후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스리파슈파티 영화초등학교에 2,000만 원을 기부한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스님은 “천막 밑에서 공부하는 스리 칼리마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선물해 주고 싶다.”며 “비닐봉지를 책가방 삼아 들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과 어린이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기쁨을 함께했으며,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쫓종 세웠다.

지구촌공생회 정기후원문의 02-3409-0303



감동과 환희의 인도·네팔 성지 순례기

▲ 쿠시나가르 대열반탑(부처님 대비장)

불자라면, 평생의 단 한 번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부처님의 나라, 세계의 유명한 여행가들이 한결같이 세상 마지막에 남은 여행지로 꼽는 나라, 인도와 네팔을 다녀왔다.

한국불교종교지도자 인도·네팔 불교문화 교류사업의 일원으로 우연히 찾아온 인도 방문 기회를 통해 불자로서의 숙원을 풀었고 감동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인도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깊은 감동과 여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망각의 동물임을 익히 알고 있어서이며, 마치 지금 잃어버리면 너무 많은 것을 놓고 살 것 같다는 나 자신의 조바심이 앞서서다. 부처님의 성지가 방치되듯 순례객을 기다리는 이 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첫 경험에 대해 내 수양의 부족을 탓할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아서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나라마다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들 한다.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인지 경험과 흥미진진한 볼거리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도의 냄새는 무엇이었을까? 혼란스러움과 거리의 소음, 그리고 비포장도로의 먼지가 없던 인도식 카레냄새? 확실히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해서 느낀 인도는 청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느껴지는 웬지 모를 답답함.

인도에 도착한 늦은 새벽에 여독에 지친 일행의 표정과는 달리 길게 늘어선 줄에도 밝은 웃음과 여유가 느껴지는 인도인들의 느긋함이 차이가 있어 보였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라는 안내의 말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는 찝찝함이란. 그렇게 인도에 도착한 것이 실감 나는 하루였다.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 바라나시로 떠났다.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거치는 기다림.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당당히 무시당하는 인도의 시스템을 또 한 번 느끼며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 녹야원으로 이동했다. 녹야원에서의 도착한 나는 무척 허망함

을 느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일까? 우리가 흔히 녹야원에서 다녀왔음을 상징하듯 찍어오는 다메크 스투파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라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지 흔히 절터였다. 부처님의 성지마다 조성된 부처진 석주만이 이곳이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 녹야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타국에서 온 수행자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무너진 법당 앞에서 절하고 간략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부처님의 광명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허망함 앞에 내 낮은 불교적 수행에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슬람에 의해 파괴된 성지를 보고, 부처님이 남기신 자비의 정신은 온데 간데없고 새로운 원망과 타타하는 마음만 채우고 있었다.

이러한 무거운 맘으로 찾은 갠지스 강. 인도인이 죽기 위해, 죽음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장소, 신성한 장소인 갠지스 강. 이 강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이 녹여있다고 말하기에는 내 눈에는 더러움이 가득했다. 가트에 죽은 시신의 화장을 위해 피워놓은 불에도 부와 신분에 따라 불 높이가 결정되는 이 나라의 어떤 것이 여행자와 순례자에게 영감과 만족을 주는 것인지도 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와 다른 의식을 지녀서? 아니면 이 강에 생로병사가 녹여있다고 생각해서? 첫인상이 그래서인지 뭐든지 삐딱하게 바라보는 내 아집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였다. 만약 보드가야를 먼저 갔더라면.....

다음날 시차 때문에 무거운 눈꺼풀을 뒤로하고 도착한 보드가야, 부처님의 성도한 보리수와 금강좌, 7선처의 존귀한 발자취를 느끼기 위해 일행이 움직였다. 그리고 만난 보드가야 대탑의 위용. 비로소 부처님의 성지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대탑 안 법당의 떨림 있는 예배를 드리고, 보리수를 바라보며 참선에 든 시간. 주변의 새소리를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정적의 시간을 갖은 이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역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허상에 벗어나질 못했음을 확 깨우려준 소

중한 장소였다. 아직은 보이는 것에 크게 감동을 하는 한 중생의 마음이지만 이 때문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평생에 느끼지 못한 그것이었다. “아~ 이래서 불자라면 성지에 꼭 가야 되는구나”라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 감동의 순간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무척 어렵겠구나 싶다. 하루의 시간이 할애될 수 있다면 줄곧 대탑과 보리수를 향해 오체투지와 참선의 시간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총무원장스님께서 감격해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일정 내내 먹먹한 가슴으로 성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쿠시나가라 열반당 순례, 80년의 세수를 뒤로하고 누워계신 부처님의 발에 숙연하게 자신들의 공경을 다하는 세계 여러 불자의 모습에 감동을 했던 장소이다. 떠나신 육신의 체온을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혼의 울림으로 남기고 가신 부처님 열반상의 모습.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보면서 깨달은 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갈무리해봤다.

주변의 대한사와 베트남 사찰을 통해 우리 한국 불교가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적 지원으로 세워지고 한참 불사 중인 세계의 여러 사찰을 보고 있노라니, 이와 비교하여 개인의 원력에 기대 불사하고 있는 한국 사찰의 현실에 대한 벽은 너무 높아 보였다. 국제팀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가 전과는 무척 다르게 다가왔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났다. 룸비니의 대성석가사를 방문했을 때도 역시 이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한평생 부처님의 성지에서 불사하고 계신 스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단을 만들고, 승단을 보필해야 하는 우리 재가 불자들의 노력이 아직 미치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룸비니 동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첫 발자국이 있는 곳이다. 이곳을 가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인도의 기다림 시스템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준 곳이다. 이제 깨달음에 조금 가까워진 것일까?

기다림에 익숙해진 나는 이제 기다리는 것에 별 변화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룸비니는 지금 한창 불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지 룸비니 개발위원회는 국가적 지원으로 적극적인 성지 복원에 나선 상태이고, 세계의 주요 불교국가에서 룸비니 국제불교 사원구역 내 사찰 불사를 하는 상황이다. 인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네팔의 성지 복원의지는 객관적으로 훨씬 높아 보였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가 네팔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네팔의 불자들이 세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게 되었다. 얼마 전 한국의 교과서에 부처님의 탄생지를 인도라고 표기한 교과서가 무려 13종이라고 하니 부처님 탄생지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 네팔 불자들이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다. 룸비니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인 장부셀파스님의 도움으로 마야데비 사원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부처님의 탄생지를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가 룸비니를 방문하게 되었다. 불기 2557년 과거의 부처님을 현재의 부처님과 같이 느낄 수 있는 가르침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인연의 신묘함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호사를 누렸으니 다른 인연의 발걸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개인적 원을 빌며 룸비니를 뒤로했다.

인도의 4대 성지인 룸비니, 보드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열반당)를 돌아보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소중한 인연을 얻었다. 비록, 부처님의 탄생, 성불, 전법, 열반의 길을 순리대로 찾지 못했음에도 성지가 주는 가르침만으로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불자의 가슴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처음 하루 이틀 동안 나 자신의 오만과 빠져들지만 아니었다면 온전히 느낄 수 있었을 인도였기에 돌아보니 너무 아쉽다. 그 아쉬움 때문에 배낭을 메고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글_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장 권대석

미 북가주 청년 불자들의 모임, 겨울 캠프 개최

북가주 청년 불자들의 모임 'Tara'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Reno에 있는 보리사본원으로 겨울 캠프를 떠났다. 회장인 안정열 군을 비롯한 18명 인원이 함께 떠난 이 캠프는 3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역시 자연현상은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타라 회원 전원은 많이 배우고 온 캠프가 되었다.



기로 하고 그날 저녁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벽난로의 따뜻한 온기만큼이나 서로 챙기는 마음도 따뜻하기만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서로 챙겨 함께 먹으며 내년엔 어떤 계획들로 한 해를 함께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처음 출발한 날부터 날씨가 순탄치 않아서,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 도착하는가 하면 둘째 날은 스키장으로 가서 스노보드, 스키 그리고 눈썰매 등을 타기로 했으나 기상악화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어 그마저도 취소되었다. 계획된 일정들은 취소되었지만, 숙소에서 서로에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등 배려하는 모습들은 보는 이를 즐겁게 했다. 연말을 맞아 타라 멤버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지기 위해 선물 교환식도 마련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보내며 화합을 다져나갔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친해진 타라의 마음처럼 따뜻한 햇볕을 맞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기상악화로 힘들었던 일정들을 뒤로하고 눈싸움도 하고 눈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다녀왔던 여행과는 달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타라 멤버들은 서로 격려하며 아쉬운 이별을 고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인연으로 발돋움하는 2013년 Tara를 기대해 본다.

23일 일요일에 돌아오기로 한 타라 멤버들은 기상악화 때문에 도로가 차단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다음 날(24일) 아침 돌아가

글_ 타라 법사 형전스님

홍콩 수봉선원 20주년 개원기념 흥법강좌법회 봉행

2012년 11월 17일~18일 이틀 동안 홍콩 수봉선원에서 개원 20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수봉선원은 송산 큰스님의 제자 수봉선사가 창건했다. 수봉선사(한국)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하와이인이었는데 17년 전에 열반하였다. 현재 주지 대관선사(홍콩)도 역시 송산 큰스님의 제자이며 한국불교 수행법으로 홍콩 불자들과 정진하는 수행도량으로 잘 이끌고 있다.

17일 유스 스퀘어(Youth Square) 회관에서 "심령혁명(Mind Revolution)"이라는 주제로 우봉선사(프랑스)와 대봉선사(미국)가, 18일에는 "생사무외(Freedom Beyond Life and Death)"라는 주제로, 계문법사(싱가포르), 대진선사(미국), 성향선사(미국)가 "대비대용(Great Wisdom, Great Function)"을 주제로 본행선사(미국), 대광선사(미국)가 설법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계문스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춘 계룡산 무상사 신도님들의 축가와 일화회 트리오의 찬불가 음성공양으로 법회가 더욱 여법하였다. 보행스님(리투아니아)의 퍼포먼스 "인생이란?"도 큰 감동을 주는 공연이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인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세계 각국 스님들과 불자들이 홍콩에서 모였다. 법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기도 입재를 하고 송산 큰스님께서 전법하고 수행했던 랜타우 섬(Lantau Island) 대불(Big Buddha)성지와 피크산 정상 성지, 각수사 등을 순례하였다. 기념법회 전날인 16일에는 사이쿱(Saikung) 청정해역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

이번 행사에 특히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과 혜통스님, 청심스님께서 함께 하여 법회가 더욱 빛났다. _000_

글_ 국제포교사 문명하 / 사진제공_애니타임 투어



뉴욕 불광선원, '피플투피플'에 캔푸드 등 전달

뉴욕 태판 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이 올해로 4년째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다. 12월 21일 동지 불공을 드린 후 사찰 인근에 있는 봉사

단체 '피플투피플(People to People)'을 찾아 캔푸드, 시리얼, 라면 등 음식과 성금을 전달했다. 음식은 지난 한 달 동안 사찰 불자들로부터 기부받았다.



(2011년 음식과 성금을 전달했던 모습)

휘광스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구호의 손길이 필요하다"면서 "나와 남의 구별이 없는 부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휘광스님을 비롯해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글_ 불광선원 총무 문종스님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스님 두 번째 수필집 출판

12월 9일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법장스님의 두 번째 수필집 '발우에 핀 꽃' 출판 기념식이 화엄사 근처에 있는 Terance Walton 오디오리움에서 열렸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사무처장과 사무주임은 12월 8일 토요일, 한국에 간 휘광 교구장스님을 대신하여 12월 9일에 있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법장스님의 에세이 "발우에 핀 꽃"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자 필라델피아 화엄사에 다녀왔다. 화엄사에서 하루를 머물며 새벽기도와 일요법회에 참여하였고, 화엄사 신도님들과 함께 공양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화엄사 불자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 기념식은 '바다를 삼킨 물방울'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이다.

답아 다큐멘터리로 37분 상영하기도 했다. 법장스님은 법문에서 수필집으로 엮어진 동기에 대해 "글을 신문에 게재하고 방송에 나가 포교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이 원고를 보내 달라 하고, 좋았다는 반응이 이어져 수필집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며,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도자의 노래로 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회에서는 법장스님이 화엄사 개산 16주년을 맞아 화엄사를 일구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발자취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덴버의 이반산맥으로 떠난 명상과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이 책은 법장스님이 미국에서 포교에 전념하면서 신문에 연재한 칼럼 에세이들을 묶어 만든 것이다.

글_ 미동부해외특별교구

국외사찰 단신

◆ 대한불교 조계종 광 보타 낙가사, 지금 마련 굴 판매

12월 18일 광의 보타 낙가사(주지 도휘스님)는 연말을 맞아 지금 마련을 위하여 굴 판매행사가 있었다. 제주도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 굴 800여 상자가 입하되어 하루 만에 매진되었다. 한국인 신도뿐만 아니라 현지 광 교민 및 주민이 한국 제철 굴을 싸게 구매하여 맛있는 굴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글 보타 낙가사

◆ 미 샌디에이고, 범휴스님 초청 강연회

샌디에이고 불교계가 11월 30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범휴스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는 30일(금) 오후 5시에 UC샌디에이고 불교학생회 주최로 이 대학 프라이스 센터(Price Center, Bear Room)에서 열렸고, '현대사회에서 명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영어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강연회는 12월 2일(일) 오전 10시 30분 샌디에이고 한국선원(7969 Engineer Rd #204)에서 '행복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카멜 삼보사와 테하차피 태고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함양 동사 삼 행복마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범휴스님은 미국에 한국불교를 널리 포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원각사 동안거 관음기도 및 동지기도

뉴욕 원각사(주지 지평스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거를 맞이하여 삼칠일 관음기도와 동지기도를 봉행했다. 불교 신자들은 매년 동안거 기간에는 출입을 삼가고 수행을 하지만 수행만을 할 수 없는 미국의 실정을 고려해 원각사는 관음기도를 봉행해오고 있다. 12월 2일 동안거 삼칠일 관음기도와 16일 동지기도를 입재하여 23일 회향했다. 또한, 12월 31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새해맞이 정진법회 후 새해 첫날 5시에 새벽기도를 봉행한다.

뉴욕 원각사 1+845-497-2229

대통령 선거 : 달라이 라마는 리더십에 대해 오바마와 롬니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미국, 워싱턴 DC - 첫 번째 대통령 토론 후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적이지 않고 너무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토론에 대해 무성의해 보였고 감정 표현이 부족해 보였다. 반면 미트 롬니 지사의 맹렬한 공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2번째, 3번째 토론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가 보여준 무례한 행동에 휘둘리는 듯하였다. 토론과정에서 두 후보는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펀치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이번 토론을 통해 나는 미국인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과 대통령의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 붕괴 직전의 여러 유럽 국가와 더불어 중동의 정치 상황은 악화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높아져 가며, 다음 대통령은 직접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하고 폭발하기 쉬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의 내면적 가치는 미국이 갖고있는 계획된 과정으로 그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또는 과감하게 비폭력적 방법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

2012 선거 캠페인의 부정적인 면을 반대 하면서,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 스님은 미국을 순회하였다. 그는 서부 코네티컷 주립 대, 윌리엄 & 매리 대, 시러큐스 대학 등을 포함한 여러 미국 대학에서 가득 찬 청중들에게 법문을 하였다.

그의 법문과 최근에 발간한 책 "종교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위한 윤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특정 종교의 굴레를 뛰어넘는 윤리적인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묘사하고 있다. 인류 본래의 자비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윤리적 혹은 정신적인 가치의 근원이므로 세속적인 윤리는 가능하다. 그는 자신과 일체중생에 대하여 존경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것을 無害와 비폭력의 훈련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세속의 윤리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가 저술한 책에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人性의 인식, 행복의 염원과 고통의 소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포함한 인간 본질의 핵심 기능으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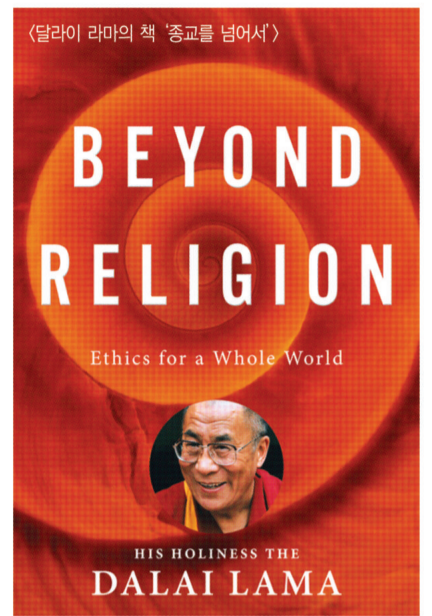
통찰력의 능력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좋은 지도자는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보다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정의에 관한 질문은, 자비와 비폭력에 근거한 도덕적인 테두리의 맥락에서 검토될 때, 주요한 가치는 용서와 인간의 능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는 자비 중심의 윤리에 위배되는데, 그것은 복수가 동기가 되었고 긍정적인 교정에 대한 죄인의 수용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의 불교 思想家인 나가르주나는 그의 저서 "보행왕정론"에서 설명하기를, 자비로운 지도자는 항상 진실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열린 마음의 너그름으로 수행하며, 평화를 귀히 여기고 지혜로서 이끈다. 그는 고난의 얼굴로 인내의 미덕을 표현하고 모두를 공경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우리 문제의 근원으로 다른 이들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적은 사실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것과 부정적인 감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얻어지는 만족을 즐길 수 있다.

티베트의 비극적인 자기희생(분신)에 초점을 맞춘 2012년 10월 11일의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이 종의 힘 對 진실의 힘 사이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의 힘이 이기고 있으나 짧은 기간이라고 하였다. 그는 핵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을 찬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민주주의, 자유와 해방 등 미국의 가치를 깊이 찬양하였다. 미국의 힘의 진정한 원천



은 무기가 아니라 理想에 있다고 하였다. 준비축소도 필요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준비축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즉 우리 자신의 도덕적 열정의 교정과 나아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개선 등이 중요하다. 달라이 라마가 말하길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증오, 편견, 인내 차원에서의 비무장과 외부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비무장이 필요하다. 선조로부터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보다는 상호 간의 소통, 협력, 이해를 통해 우리의 결정을 치료하기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는 "우리는 비폭력이 不義를 다시 재창조하는 최고의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깨닫게 하였던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의 위대한 업적에서 배울 수 있다. 20세기가 폭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를 소통의 시대로 만듭시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의 다음 대통령이 마음에 새기기를 기대해보자.

글_ 로상 텐드를
워싱턴 포스트 [2012. 11. 6]

로상 텐드를은 전통 티베트 불교의 비구니스님이며 워싱턴 포스터지의 지역임을 지도자 네트워크의 공헌자이다. 비구니스님은 레스턴의 구하사마자 불교 센터에서 불교와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대승불교 보존 협회의 지부인 그 센터는 1994년에 설립되었고 달라이 라마 聖下의 맥을 잇는 겐룩파 전통을 따른다.

성운스님, 말레이시아 포교 기념 법회

지난 11월 24일, 8만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12년 "말레이시아가 좋다." (大馬好, Marvelous Malaysia) 대법회가 봉행되었다. 이번 법회는 대만 불광산사 창립자인 성운 큰스님의 말레이시아 포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슬랑어 (Selangor) 주의 샤희알람(Shah Alam) 체육관에서 열린 것이다. 성운 큰스님은 16년 전에도 같은 체육관에서 큰 법회를 열어 법문한 적이 있다.



성운 큰스님은 일찍이 말레이시아에서 포교 활동을 펼쳤다. 50년간 말레이시아에 스무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현지 불교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1980년대 현지에서 포교하면서 말레이시아불교청년총회와 깊은 인연을 맺은 바가 있다. 그 이후 많은 말레이시아 청년 불자들이 불광산사에서 출가하였고 불광산사도 역시 현지에서 많은 포교원을 설립하여 불교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번 법회의 봉행과 함께 말레이시아 불광산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우선 '전 국민 5계 수지 캠페인'을 벌여 보다 많은 청년 불자들이 5계를 받고 지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성운 큰스님이 현지 중국어 일간지, 방송국 등 주요 언론의 직원들과 좌담회를 가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24일 날 법회에는 말레이시아 각지에서 온 불자들과 동남아 각국의 국제불광회 간부 등 총 8만 명의 대중들이 샤희알람 체육관에서 모였다.

올해로 85세인 성운 큰스님은 대만 불광산사에서 온 스님 108명과 함께 입장한 후 그 자리에 있는 4만 명에게 삼귀의 및 5계 수계를 하였다. 큰스님은 법문에서 네 개의 아닐 '不' 자로 대중을 격려하였다. 즉, 화엄경에서의 '不忘初心' (불망초심), 유마경에서의 '不請之友' (불청지우),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의 '不念舊惡' (불념구악)과 대승기신론의 '不變隨緣' (불변수연)이다. '불망초심'은 모든 일에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불청지우'는 남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움을 먼저 주는 좋은 벗이 되라는 것이다. 또한 '불념구악'은 남의 옛 허물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며 '불변수연'은 불변의 도덕적 인격과 원칙을 지키되 사소한 일에는 그때그때의 인연을 따라 달리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큰스님이 이해하기 쉬운 '인간불교' (人間佛敎) 생활 법문을 설하였고 말레이시아 불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글_ 소열님

마하보디사, 병원과 의대 설립 계획 발표

인도, 파트나 - 불교의 聖地 중 하나인 보드가야의 마하보디사는 비하르의 성스러운 마을에 국제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규모의 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1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사원 관리위원회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의 도움으로 불교 국제병원과 보드가야 의과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보드가야 사원 관리위원회의 도르지 비서관이 발표하였다. 도르지 비서관은 전화로 이안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최선의 의료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으로 계획되는 보드가야의 최초 개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르지 비서관은 "나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의 대사관 내 많은 공무원이 보드

가야에 제안된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도르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조성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동남아시아 22개국의 대부분이 보드가야의 프로젝트 기금 조성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토지와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한 보드가야 지역 행정부에 접촉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관리 위원회 측에 토지를 제공하는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마하보디사는 2002년 6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유산에 지정된 바 있으며,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사원 내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라다크의 신성한 불교 경전 암송, 유엔목록에 등재

라다크, 레흐 - 口傳 전통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예술과 사회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업적으로 인도 라다크 지방의 신성한 불교 경전암송이 세계 위원회에 의해 '무형 문화유산'의 UN 목록에 추가되었다. 세계위원회는 口傳 전통, 예술 및 사회적 관습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24개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목록에 알제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프랑스, 헝가리, 인도, 이란, 이탈리아, 일본, 말리, 모로코, 오만 그리고 한국 등과 관련된 20개의 새 항목을 추가했다.

이 중에는 에콰도르 토틸라의 밀짚모자를 짜는 전통방식, 모로코 세프로우의 벚꽃 축제, 타르로 알려진 목이 긴 류트의 장인 기술과 행위 예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전암송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승가의

승려와 라다크 지방의 지역민들이 부처님의 정신, 철학 및 가르침을 나타내는 신성한 경전을 암송한다고 말했다.

승려들은 法服을 입고 手印을 하며 여러 가지 약기를 연주한다. 이때 승려들은 사람들이 억압 때문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부처님과 보살, 린포체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도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해주라고 기도한다.

문화적인 항목은 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 문화유산의 기여도와 중요성 등을 포함하여 일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무형 문화유산은 한 세대를 넘어 그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삶의 양식을 포함한다.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에 가입한 해당 국가만이 유엔 목록에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46개국이 2003년 유네스코의 일반 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에 가입하였다.

Outlook India [2012. 12. 6]



태국 불자, 외설잡지에 격분하여 항의

태국, 방콕 - 남성 잡지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佛像 사이에서 춤추는 란제리 차림의 모델 사진이 태국 불자들 사이에 항의를 유발하였다. 맥심 잡지의 페이스북에 란제리를 입은 여성모델이 佛像의 머리와 팔위에 손을 걸치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올려졌다. 또 다른 사진은 많은 불상 사이에서 그녀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가린 채 포즈를 취한 토플리스 모델을 보여주었다. 3번째 사진은 금발의 모델이 다리를 쭉 편 채 佛像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들끓는 비난 여론에 대응하여 어제 아피난 포사난다 문화부장관은 불교 국제 사무소(NOBS)와 접촉하고자 하며, 사진이 인터넷으로 배포되었으므로 정보소통과 기술 부와도 접촉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진이 외국으로부터 배포되었으므로 외교 부와도 접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국의 각종 단체는 종교적인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그 잡지 측에 항의할 것이다.

아피난장관은 불교의 상징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었으므로, 문화부는 불교 상징물의 사용이 미래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誤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국어와 영어로 적힌 小책자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세계불교청년도우회 의장인 폰차이 피나폰은 그 역시 그 사진을 보았으며, 그들이 불교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국회의 종교, 예술, 문화위원회에 제기하고, 문화부와 불교 국제 사무소에도 항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하고, 종교상징물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폰차이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폰차이 장관은 구리 광산 프로젝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메스 야냐에 있는 2,300년 된 불상들을 구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고, 잡지에 관련 사진을 실고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 초, 태국에서 '부처님 알기'라고 불리는 단체가 생겼는데, 佛像의 誤用에 대해 각성하는 데모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에는 불상과 관련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

The Nation [2012. 11. 15]

국제 불교 지도자들, 미얀마인들에게 자비를 보일 것을 주장

미얀마, 양곤 - 부재중인 달라이라마와 세계 17명의 불교 지도자들은 미얀마 불교인들이 라킨주의 이슬람교인에 대한 상호 존중과 자비를 보이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많은 불교 승려와 주지스님들이 미얀마 지역에서 이슬람 로힝가 공동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데모를 주도한 후 발표되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 인종차별 폭력과 라킨주의 이슬람교인에 전반적인 폭력 및 국가 전반에 걸친 다른 것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얀마인들은 고귀한 사람들이며, 미얀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오랜 역사가 있다. 우리는 비폭력, 상호 존중과 자비를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수행하는 당신들을 지원하며 세계에 이것을 재확인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베트남의 틱낫한스님을 비롯하여 미국, 스리랑카 태국, 일본, 영국, 캐나다의 로버트 텐진 투르만 교수 등 각국의 불교지도자들이 동참하였다.



마지막으로 늦게 도착하여 이 성명서의 마감 시간까지 사인을 못하였던 달라이라마는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미얀마의 로힝가 이슬람교인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그는 비폭력에의 훈련을 계속하고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중시하는 종교적인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였다.

Mizzima News [2012. 12. 8]



스왓 밸리에서 고대 무덤 발견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스왓밸리에서 3천 년 이상 오래된 복잡한 장례의식을 나타내는 묘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탈리아 학자들의 임무는 1950년대에 스왓의 불교 보물 유적지인 우드그람에서 유적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지역은 아름다운 산, 계곡, 강 때문에 파키스탄의 스위스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북서부 지역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우드그람에서 先史 불교 묘지 지역이 있다고 알았으나, 최근 밀접하게 붙어 있고 부분적으로 포개져 있는 30기 정도의 무덤을 발견하였다.

고고학자 올리비에리는 "몇몇 무덤은 돌벽으로 쌓여 있었고, 나머지는 진흙이었다."라고 하였다. "그 묘지는 기원전 2천 년 말과 1천 년 초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또한 "그 무덤은 기원전 1천 년부터 AD6세기의 북서 파키스탄과 동부 아프가니스탄에 자리

잡았던 불교 간다라 문화보다 앞선 문화를 나타낸다."라고 덧붙였다. "몇 개의 철 조각의 존재는 아대륙에서 발견된 이 금속 중 가장 오래된 금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무덤의 시신은 최초로 목제 난간으로 둘러싸인 열린 형태의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덤은 봉해지고 土葬 되기 전에 뼈는 부분적으로 태워져 재차 열린 형태였다. 남자는 질 좋은 병, 그릇, 조리 냄비와 함께 묻혔고, 여자는 그다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구슬, 청동 헤어핀, 그리고 물레 가락과 함께였다.

성직자 파쑤루라가 이끄는 탈레반 저항 세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스왓밸리에 그들의 법률을 구현하기 위해 여학교에 불을 지르고 상대를 참수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 2009년 육군의 공세가 폭동을 진압했다고 주장하지만 고립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Pak Tribune [2012.11.25]

불교활동가 지원, 몽골법당 바트보양스님 선정



12월12일 제9회 불교활동가지원기금(설법연구원 동출스님)의 대상으로 선정된 몽골법당 바트보양스님과 김장경 원심회장, 전은옥 합천평화회집 운영위원에게 활동가상장과 활동기금을 전달했다.

바트보양스님은 재한몽골인들의 네트워크형성과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와중에도 법당을 운영하며 이주민 상담, 통역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몽골 간단사원 소속의 바트보양스님은 2007년 한국과 인연을 맺고, 대구 (사)함께하는세상에서 몽골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서울 몽골법당의

주지소임을 맡은 후 운영이 막대한 몽골법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몽골 설날행사, 나담 축제 등 문화행사와 일요법회, 정기법회의 포교 원력을 통해 이제 몽골법당은 몽골인들의 인식처로 자리잡았다.

2009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 불교문화마당에 몽골부스를 운영하면서 몽골 불교를 알리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연등회 원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바트보양스님은 "몽골법당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몽골 불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글_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이주노동자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 구미에서 열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스님)은 12월 16일 구미마하이주민센터 강당에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2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 도모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 연말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한지공예를 실시했으며, 캄보디아 밴드의 연주와 한국가요 부르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해 오고 있는 구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여 평소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건강관리에 소홀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효명(중국어) "전에 센터 내 쉼터에 머물다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어



요."라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주노동자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사기증진을 높여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의 형성과 사기증진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과 임금체납,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 마하이주민쉼터를 경북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한국조폐공사 화폐 본부 직원들 공동나눔회 구성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집수리 재능기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니 앞으로 더 분발해서 나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2일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이주 외국인근로자 쉼터 '대구보현의 집'에서는 부서지고 망가져 추운 겨울나기를 해야 할 쉼터를 말끔하게 수리해준 한국조폐공사 화폐 본부 공동나눔회 윤용진 회장께 감사패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현의 집은 연간 2천여 명 이상이 다녀가는 시설임에도 30년이 넘는 오래된 주택을 이용하다 보니 여기저기 고장투성이다. 그렇다고 고액을 들여 수리할 처지도 못되어 마음 졸이고 있던 차 한국조폐공사 화폐 본부 공무부 부서원 38명으로 구성된

공동나눔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옮겨올은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됐다.

보현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종우 소장은 "기술자인 본인들은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오래된 집에 살면서 고장이 날 때마다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달려와 깨끗이 보수해주어 한국인의 온정을 전해준 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현의 집 쉼터에 거주하는 사낫트(스리랑카) 씨는 "한국 겨울 너무 추운데 문이며 보일러며 고쳐주어서 고맙고, 그보다 우리 같은 외국 근로자에게 관심을 뒀 주시는 보현의 집 식구들을 포함한 모든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보현의 집 053-471-6640

방글라데시 '희망쉼터' 건립 모금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방글라데시 희망쉼터 모금을 위한 사진전이 조계사(12월 13일, 15일)와 봉은사(21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글라데시 모금(1월 3일 기준) 총액 9,182,347원

청주 일심회 2,000,000 김포중합사회복지관 650,000 조계사 모금 2,519,300 봉은사 모금 1,424,830 정정숙 100,000 한동성 30,000 엄경희 20,000 김종성 30,000 김상행 50,000 박찬희 100,000 좋은날 300,000 조계종 흥선사 100,000 조성일 30,000 이선화 10,000 최영주 정안약국 50,000 김민정 5,000 김홍월 30,000 이영신 10,000 윤람사 100,000 김영선 50,000 월인사 해관 50,000 정삼봉 20,000 김수호 10,000 거리 모금 163,217 박영수 5,000 최문자 100,000 안홍사 다문화가족쉼터 100,000 김명숙 5,000 안수암 100,000 유은득 50,000 이해산 30,000 효심사 50,000 동인사 200,000 홍희숙 5,000 보현사 200,000 유재련 20,000 이의숙 5,000 양인선 5,000 이경순 50,000 송동월 20,000 주영숙 10,000 윤양원 10,000 정수경 30,000 정유미 30,000 광종범 15,000 서애리 10,000 이영신 30,000원 수취발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 희망쉼터를 지어주세요

방글라데시에서 불교는 1%를 차지하는 소수종교지만, 그 역사는 2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2012년 9월 말,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에 의한 불교탄압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여 채의 사찰과 200여 채의 신자들의 집이 파괴되고 수많은 불자들이 부상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방글라데시 불교를 위해 종교평화의 염원으로 피해지역에 희망쉼터를 짓습니다. 희망쉼터는 쉼 곳도, 기별 곳도 모두 사라진 방글라데시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금으로 콕스바저리 지역과 센트럴시마 사원에 희망쉼터를 짓습니다.

모금 내용	지비액 1구좌	평화시멘트 1구좌	불상 모연	건물 1동간 건립비용
	5,000원	10,000원	300만원	500만원

이 모금캠페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함께합니다.
 후원계좌 : IBK 024-070670-01-011 (예금주 : 방글라데시비대위 남준호)
 문의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이주민법당 보타사, 김포마하이주민센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재한중어인연대, 네팔법당 용수사, 스리랑카 크리스나 템플, 스리랑카 마하비라, 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로터스월드